



마세라티 기블리



람보르기니 우라칸

럭셔리카, 거침없는 질주



포르쉐 마칸S



벤틀리 컨티넨탈

수입차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수 수 억원을 호가하는 럭셔리카의 판매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수입차가 대중화되자 초창기 수입차 고객이 희소성을 찾아 고가차로 이동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시장에서 대수 수입 고가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 평균 판매 증가율이 25.5%를 훨씬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며 쾌속 질주했다.

이탈리아 고가 자동차 업체인 마세라티는 정확한 판매 대수를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국내 시장 판매량이 2013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마세라티는 2013년에 총 120대를 판매한 바 있어 작년에는 600대 안팎의 자동차를 국내 시장에서 팔아치운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리아 슈퍼카 람보르기니도 작년 30여대를 팔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는 국내 시장에서 3억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우라칸, 최저가 5억7000여만원인 아벤타도르 등 2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 국내 판매량 급증

전년 비해 25% 이상 늘어

희소성 앞세워 시장 잠식

영국 고급 세단 벤틀리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인 총 322대를 판매, 전년(164대)에 비해 96.3% 판매량을 늘렸다. 2억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4도어 세단 플라잉스파와 라인업이 총 판매의 60%를 책임지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여세를 몰아 3억8000만원대의 한정판 퍼포먼스 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탈 GT3-R을 6대 들여오고, 4억7000만원대의 플래그십(최고급) 모델 물산의 고성능자인 물산 스피드를 출시하는 등 올해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럭셔리 세단 롤스로이스도 작년 4억1000만원의 엔트리 모델 고스트를 앞세워 총 45대를 판매, 50.0%의 성장세를 보였다.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는 작년 국내에서 전년보다 25.8% 늘어난 2568대의 차량을 판매, 수입차 전체의 평균 성장률을

소폭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마칸 등 1억원대 미만의 비교적 저렴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1억~2억 원대의 정통 스포츠카 911 시리즈나 파나메라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포레스 코리아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고가 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 수입차 총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수입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자 차량을 통해 차별화를 원하는 사람이 희소성을 노리고 좀더 비싼 차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예전에는 수입차 고객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남들과 다르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했으나 이제 이들 3사의 국내 판매량이 한 해 1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아무나 다 타는 수입차가 아닌, 희소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럭셔리 브랜드로 이동하며 고가차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수입 45% 늘때 수출 1.6% 늘어...작년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 급감

지난해 승용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소폭으로 늘어 승용차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다.

2일 관세청의 '2014년 승용차 교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439억 5600만달러(302만2000대)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승용차 수입액은 79억7800만달러(25만6000대)로 전년보다 45.4% 급증해 무역수지 흑자는

359억7800만달러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수출차 평균단가는 대당 1만4544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수입차 평균단가는 3만1144달러로 전년보다 4.5% 올랐다.

관세청은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생산이 점차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승용차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소형차와

고급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고, 할부 마케팅 등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승용차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에 55.5%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배기량별로 휘발유차 수출은 주력품목인 1500cc~2000cc 승용차가 1.5% 증가한 반면, 1000cc~1500cc 승용차는 전년 대비 6.2%, 2000cc 초과 승용차는 6.3% 올랐다. /연합뉴스



Watch Kia's Big Game Ad Featuring the All-New 2016 Sorento

기아차는 미국 슈퍼볼 경기 중 내보낼 신형 쏘렌토 TV광고에 영화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캐스팅하는 등 미국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기아차 미국 홈페이지)

007이 타는 기아차

“시승하면 25달러 줍니다”

미국시장 점유율 높이기

“기아차를 시승하면 돈을 드립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올 뉴 쏘렌토를 미국 시장에 선보인 기아차는 TV광고와 이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대차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스 비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미국에서 3월 말까지 시승하는 고객에게 25달러의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기아차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예약을 한 뒤 딜러점을 방문해 올 뉴

쏘렌토나 옵티마(한국명 K5) 등 신차를 골라 시승하면 25달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 기아차 홈페이지와 딜러점에 고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시승 체험이 늘어나면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와 판매 향상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경기에서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광고에 참여한다. 기아차는 슈퍼볼 경기 중 내보낼 신형 쏘렌토 TV광고에 영화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캐스팅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다.

미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이달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

에서 올 뉴 쏘렌토를 선보인 데 이어 다음 달 1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미국 시카고오토쇼에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4륜구동 오프로드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의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차로, 도시를 벗어나 스키나 스노보드, 캠핑, 등산 등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보다 8.4% 증가한 58만여 대를 팔아 전체 평균 판매 성장률(5.9%)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미국시장에서는 승용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센티브 증가 요인이 있지만, 쏘렌토와 카니발을 본격적으로 판매해 이를 상쇄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세계시장 점유율 3년 연속 ‘제자리’

작년 771만2000대 판매...2012년부터 8.8% 점유

현대·기아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4.7% 증가한 총 771만2000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LMC 오토모티브가 집계한 글로벌 산업수요 8천716만6000대를 기준으로 8.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1년 8.6%로 경종 뒀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8.8%를 나타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 중국 3공장을 제외하고 추가 생산기

지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상당히 선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업체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적극적인 판촉 공세를 펼친데다, 현대·기아차가 주력 시장으로 공을 들이는 신형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얻은 결과여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분기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1분기 8.3%로 시작했으나 2분기 9.1%, 3분기 9.0%, 4분기 9.0%로 9% 선을 유지했다. 특히 4분기에 800만 대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연간 점유율을 8.8%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선방은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해 추가 생산기지 가동이 없는 탓에 현대·기아차의 판매목표도 지난해 대비 2.5%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2016년에는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비롯해 현대차 중국 4, 5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에도 제값 받기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인지도는 높이는 한편 투산, 아반떼, K5, 스포티지 등 불륜기들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아트타운갤러리 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 전시대관 접수합니다. 관장 정 인 ☎062)232-7141 010-5608-1878	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의상실원) 부대찌개, 찌갈매기 대표 최은진 ☎062)222-9290	시골집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선집,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9	능이버섯백숙문화전당점 동구 대의동 67번지 전일빌딩뒤 능이버섯백숙, 삼계탕전문 ☎062)223-1500
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차트프라자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무지개문화센터 동구 게임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코너 중목별 댄스스포츠 및 공예 수강 모집. 밸리댄스, 리본공예, 훌패션, 노래교실 등 대표 오성자 ☎062)529-1188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제휴점) 이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썬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대표 이미지 ☎062)225-9278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게임동 마사회 건너편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통,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시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한 배달 카드결제 가능 ☎1588-3300	박당화랑 동구 금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신신예술의집 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금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다나베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71입구인숙촌원)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욱희 ☎010-3225-273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림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호명 개명지도함 대표 이태열 ☎010-9655-7765			